

1980년대 학생운동이 남긴 한계와 1960년 2·28 민주운동을 통한 학생운동 정신의 복원*

- 독일 1968년 학생운동과 한국 1987년 학생운동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 태 근**

• 요 약 •

한국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결에서 초래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오랫동안 사회의 주축세력으로 존재하는 386세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사회변화의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 청년층은 각자도생하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저항과 비판의 힘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기성세대인 386세대에 대한 반감과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정치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386세대의 현재 모습이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점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추적한다. 이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독일의 68세대의 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이후의 경로를 비교할 것이다. 본 연구가 두 연구의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60년대 학생운동 특히 대구지역의 2·28 민주운동이다. 이념, 정치적 권력 그리고 물질적 논리에 함몰되지 않았던 지역 고등학생의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을 되짚어봄으로써 현시대의 동시대인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이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기회를 가져볼 것이다.

주제어 : 독일의 68운동, 신사회운동, 한국의 1987년 민주화운동, 386세대, 문화변혁, 2·28 민주운동

* 이 논문은 2022년 화성장학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지원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학술연구비로 수행한 연구이다.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I. 들어가며

2023년 한국사회는 높은 갈등의 파고를 경험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한국사회도 피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외환 위기 이후 지적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고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은 지구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의 정치는 갈등의 조정 및 조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치적 갈등구조가 시민사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의 이념, 세대, 지역, 성을 주제로 하는 복잡한 논의구조가 보수/진보의 단순하고 감정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전락하면서 사회 통합을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즉 학생운동이 하나의 희망으로 떠올랐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청년세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전쟁에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진로에 전념하기 위해 성적과 취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견고한 불평등의 현실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청년층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저항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조 섞인 한탄이다. 소위 '수저론'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반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현실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는 체념적 현실인식이 응축되어 있다. 때마침 2010년대 중반 전 세계에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킨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¹⁾가 주장한 '세습 자본주의'는 수저론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현실의 변화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체감하게 된 그들이 경쟁을 통한 최소한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정성'에 주목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과 청와대의 대학생 청년비서관 발탁은 대표적인 공정성 논란의 사례들이었다. 공정성논란을 통해 청년세대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부모세대에 대한 불만이었고 소위 386세대에 대한 그들의 감정적 반발은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1)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유엔제이 옮김, 『21세기 자본』, 파주: 글항아리, 2014.

청년세대에게 386세대는 불신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다.²⁾ 다시 말해 그들에게 386세대는 80년대 독재권력에 맞서며 세상을 바꾸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민주화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지만 더욱 강력한 기득권세대다. 정치개혁 혹은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민주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던 그들은 차츰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물질적 부마저도 획득한 주류세력이 되었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세대이다. 게다가 정치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친분관계에 따라 세력을 만들게 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성과마저도 희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386세대들이 사회의 중심위치에 올라설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더군다나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던 과거와는 달리 그들은 사회의 위계서열문화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면서 소위 ‘갑질문화’라는 악화된 현실을 만들었다. 386세대의 이런 모습들이 청년세대들의 불만을 폭발시킨 배경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권력과 기성세대에 저항했던 그들이 이제 청년세대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린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와 386세대의 갈등,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386세대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리고 그 근원을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가치관에서 찾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의 386세대의 변신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2장). 이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독일의 68세대의 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이후의 경로를 비교할 것이다(3장). 본 연구가 두 연구의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60년대 학생운동 특히 대구지역의 2·28 민주운동이다(4장). 이념, 정치적 권력 그리고 물질적 논리에 함몰되지 않았던 지역 고등학생의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을 되짚어 봄으로써 현재의 동시대인들이 추구해야 할 문화적 이상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기회를 가져볼 것이다.

II. 한국의 1987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386세대의 변화과정

1. 1987년 민주화운동에서 386세대의 관념적 정치이념과 정치투쟁

1980년대 학생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는 1980년 5·17 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이

2) 김정훈 외. 『386세대 유감: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 고의를 묻다』,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19.

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권력의 공백을 군사쿠데타로 메운 전두환 군부는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충돌하였다.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노동운동의 열망이 분출하였고 무엇보다 1980년 봄부터 시작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학원 민주화의 요구가 점차 대정부 민주화 투쟁으로 전환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의 상태에 빠져 들었다. 민주화 열망을 억누르기 위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발표한 신군부에게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책략이 필요했다. 당시 시위 강도를 낮춘 서울 지역 대학생들과는 달리 여전히 강력하게 저항했던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그들이 찾은 권력 찬탈을 위한 희생양이었다. 5월 18일 전남대 교문에 배치된 공수부대원이 등교하려는 대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면서 시작된 광주 항쟁은 5월 27일 막을 내릴 때까지 수많은 광주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진압봉에서 시작된 국가폭력은 총과 칼의 사용할 정도로 잔혹해졌고 마지막에는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 더군다나 특수부대원이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신군부는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한 이후 그들을 ‘북괴에 동조한 세력’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저항을 ‘북괴의 조종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하면서 다른 지역의 국민들과 분리시켰다. 신군부에 의해 장악된 언론이 새롭게 등장한 절대적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광주시민의 희생은 대다수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의 만행이 차츰 외부로 알려지면서 민주화운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민주화운동이 반헌법적 쿠데타세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발현된 것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린 외신기자와 함께 대학생들의 처절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라는 강력한 억압장치가 작동한 측면도 있지만 언젠가는 민주화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절대권력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목숨은 한정되어 있어서 한국의 민주화는 시간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신헌법에 이어 등장한 신군부의 무자비한 진압과 권력장악은 그들의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자각으로 이어졌다. 80년대 광주의 실상을 조금씩 접하게 된 대학생에게 이제 절대 권력에 대응하고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필요했다. 1980년대 초 광주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제적과 해고로 이어지면서 대학생과 지식인은 비타협적 저항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먼저 1980년 ‘서울의 봄’을 성공시키지 못한 반성과 향후 운동방향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아직 역량이 부족하므로 대규모 학생동원은 시기상조이며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장기적 역량강화를 주장하는 학생운동의 주류와 그것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주장한 비주류 학생운동 간

의 논쟁이었다. 전자는 70년대부터 학생운동을 지도해 온 무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구조직이었고 나중에 학림으로 명명된 후자는 광주학살에 분노한 학생 대중과 함께 즉각적인 투쟁을 요구한 신조직이었다. 새로운 조직 건설을 시도하던 일부 학생운동세력은 이태복과 이선근을 중심으로 기존의 학생운동을 대체할 전국적인 학생운동조직과 노동자조직을 준비하였다. 점차 세가 커지는 새로운 학생운동조직의 요구를 지도부가 수용하면서 정권의 삼엄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대학 교내에서 시위가 감행되었고 1981년 신학기부터 시위는 점차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들의 저항을 초기부터 원천봉쇄하려는 정권은 전국민주학생연맹(약칭 전민학련) 소속 학생을 불법체포하고 엄청난 고문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그들을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정권의 강경진압을 정당화하였다. 정당성이 부재한 정권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대응전략은 철저한 이념무장과 함께 엄격한 조직구성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시와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한 정권의 이념적 공세가 학생들의 급진적인 이념과 사상을 야기하였다. 학생들은 1984년부터 인정된 합법적인 자율조직으로서 총학생회 외에 비합법조직을 통한 학생운동의 강령과 규약, 생활수칙을 마련했다.³⁾ 언더서클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은 조직의 보전을 위해 점차 점조직화 되어 갔다. 1986년 학생들의 주장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으로 정식화되었지만 수많은 내부 정파들의 사상운동은 개별조직의 사상적 선명성과 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한국사회에서의 변혁을 위해 한국사회의 성격규정, 운동의 과정, 변혁을 함께할 계급이나 계층의 범위 그리고 합법 정당이나 야당과의 관계설정은 그들의 사상운동에서 핵심주제였다. 1984년부터 학생운동은 그들의 이념에 기반하여 기존의 교내시위에서 벗어나 가두투쟁과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투쟁으로 점차 더욱 급진적이고 과격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들의 이념무장은 노동운동과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의미는 민주화운동과의 연계성에서 결코 폄하될 수 없지만 그들이 점차 보여주는 독단적인 모습은 그들의 헌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정권의 실체폭로와 책임자처벌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철저히 경시되었던 노동자의 권리쟁취는 학생운동의 또 하나의 핵심주제였다. 80년대 대학생들은 앞으로 다루게 될 독일의 68 학생운동과 유사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모습에 한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의 농민, 도시적 하위문화, 유사가족 공동체, 공장의 노동자, 투쟁하는 전위부대로서 차용된 정체성과 조직형식을 형성하기

3)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서울: 형성사, 1988, pp.215-223.

위하여 노력하였다.⁴⁾ 그것을 통해 그들은 세상과 타협한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의식화된 학생운동세력과 문제의식을 가지는 대학생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의 국제 정세를 고려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서구사회는 복지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과부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중이었다. 가족의 해체와 노동조직의 약화가 개인화현상을 야기하면서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국가의 개혁정책에 동조하는 상태이기도 하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약화되는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사회는 정권의 철저한 통제에 의해 서구사회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반공이념을 동원하여 민주화세력을 탄압했던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화세력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학생운동은 서구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결과 학생운동은 1986년을 거치면서 크게 한쪽에서는 서구사회도 이루지 못한 사회주의 혁명을 한국사회에 실현시킨다는 결의(PD계열)와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일국가를 북한과 연대하여 건설한다는 의지(NL계열)로 구체화되었다.⁵⁾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 변혁적 이념이 갈수록 선명성과 투쟁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학생운동은 더욱 독단적인 경향으로 흘렀다. 정권의 탄압과 감시가 엄혹한 상황 속에서 결과였지만 학생운동은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각자 자신들의 이념을 절대시하고 다른 주장을 극단적으로 배격하였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차츰 내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화운동이 무르익어가고 새로운 정치현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학생운동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1980년대 말 학생운동 세력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이 학생운동을 위한 모델로 생각했던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향목표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사회변혁을 주장하는 일부의 급진적 학생운동세력이 여전히 있었지만, 다수의 학생운동가들은 한국사회의 현실로 빠르게 돌아왔고 그 결과 그들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⁶⁾

4) Offe, Claus, "Vier Hypothesen über historische Folgen der Studentenbewegung", *Leviathan*, Vol 24, no 4, 1998, p.554와 비교.

5) 이창언, "NL(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의 주류화와 한계", 이호룡·정근식(편), 『학생운동의 시대』, 서울: 선인, 2013, p.226.

6) 고원, "민중민주(PD)과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과 메커니즘", 이호룡·정근식(편), 『학생운동의 시대』, 서울: 선인, 2013, pp.265-301과 비교.

2. 1990년대 386세대 권력지향과 정치과잉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절반의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커다란 결과물을 쟁취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이었지만 광주를 피로 진압했던 군부세력의 정권유지를 합법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규정되었다. 정치권의 분열로 인해 야기된 실패 외에 학생운동의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다. 민주화 이후 1990년 이전까지 학생운동 활동가들은 민주화운동과 연계되는 노동운동의 열기에 고무되어 사회변혁의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태였다. 관념적 이상세계에 대한 갈망은 구체적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현실은 학생출신 노동운동가들이 희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노동자계급의 주도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1990년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지금까지 굳건하게 믿었던 이념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노동운동가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상상 이상이었다.⁷⁾ 변혁을 지향하는 자신들의 이론이 ‘과학적’이고 자신들의 투쟁만이 선명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에게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과거와 현재의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도 사라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후 대중들을 이끌어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1980년대의 학생운동의 엘리트주의는 두 방향으로 발현되었다. 하나는 1990년대 이후 과거의 이념과 단절하는 현실순응적 경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현장에 투신하여 더욱 자신의 이념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당 합당으로 인한 보수대연합이 대학생들의 과격시위와 정권의 강경진압이라는 대립과 갈등을 연장시켰지만 1980년대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동력은 갈수록 점차 약해졌다. 무엇보다 전체 민주화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 김영삼계와 김대중계로 분화되는 과정에 학생운동은 기성정치에 포위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지역주의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되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호남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 혹은 영남지역에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에 적을 두고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였다. 386세대들 중 다수는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며 정치권에 진입하였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정치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아무런 준비없이 정계에 뛰어든 그들이 정권교체에 기여하고 형식적 정

7) 김옥동 외, “현대 프랑스 사상의 한국적 이해와 수용”, 이정우·김성기 외(편), 『프랑스 철학과 우리』, 서울: 당대, 1997, pp.163-232.

치민주화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기성 정치문법을 답습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 결과였다.⁸⁾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자신이 소속된 정당 혹은 같은 정당 안에서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파벌을 만들고 상대방을 배격하는 정치가 지속되었다. 그것을 위해 강한 연고주의나 정실 문화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고 386세대에게 학생운동 경력은 그들을 튼튼하게 묶어주는 고리로 작용하였다.⁹⁾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탄핵 후폭풍으로 대거 정계에 진출한 386세대들에게 학생운동 경력은 이전의 관념적이고 급진적 이념과 과격한 투쟁에 대한 자기성찰의 결핍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386세대들의 미래 청사진 부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쉬운 통로로 작용하였다. 여기에서부터 386세대와 후배 대학생 혹은 젊은 청년세대와의 단절은 이미 예견되었고 그들의 특권의식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되었다.

386세대의 문제는 비단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시민단체나 노동계로 진출한 학생운동 활동가들도 여전히 과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소수의 학생출신 노동운동가는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계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변혁을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로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다. 노동운동의 핵심세력이 된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목표는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복수노조설립의 관철이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던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대기업노조가 전체 노동운동을 주도한다는 명분에 따라 대기업노조와 중소기업노조의 임금 및 기업복지의 격차를 묵인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기업별노조가 법제화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대기업 계열사들 사이의 경쟁적 임금인상과 기업복지요구가 가져온 그 격차를 극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대기업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점차 대기업노조가 경영진과 암묵적 공생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우선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할 때는 노동자계급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중산층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생활수준을 누리는 집단이 되어 있었다.¹⁰⁾ 그리하여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노동현장의 현실주의적 요구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야망은 점차 분리되고 접점을 찾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 있는 대기업노조의 경제적 보수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구체화되

8) 이은영, 『관습의 정치: 한국 정치의 해부과 대안』, 서울: 박영사, 2007, p.107.

9) 강준만, 『강남 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 주의』,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1, p.106.

10) 유형근, “쟁점과 대안: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은 어떻게 해체돼 갔는가”, 『노동사회』, 통권 164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pp.52-83.

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서구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와 함께 갑작스럽게 반강제적으로 갑작스럽게 도입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한국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노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 대기업노조이 기댄 것은 중소기업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였다.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완충장치로 여겼고 노동자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는 무관심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노조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노동자들이나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세대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나아가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현장에서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편으로 더욱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노동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 시위는 일상이 되었다. 정치권이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수록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였다. 게다가 결코 객관적이지 않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한국사회를 몰아넣었고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치과잉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심지어 정치혐오증으로 갈리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사회변혁을 위해 헌신한다는 명분을 가졌던 노동운동의 핵심세력이었던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들은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 구조의 ‘생산자’ 혹은 ‘수혜자’가 되어 있었다.”¹¹⁾

3. 386세대의 사회변화를 위한 철학의 빈곤과 실천의지의 부재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치권부터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은 386세대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새로운 주류가 활용한 전략은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방식인 우리와 그들의 구별이었고 우리는 선이고 그들은 악이라는 이분법이었다. 여야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동일한 정당 내의 당권투쟁에서도 파벌을 통해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졌고 권력이 한쪽 파벌로 쏠리면 반발하는 다른 파벌에 의해 분당이 감행되면서 정치적 무규범은 한국정치의 관례로 자리잡았다. 선거를 중심으로 정치공학적 계산이 우선되다 보니 지켜지지 못할 공약이 난무하였지만, 선거가 끝나면 쉽게 잊혀졌다. 정치인들의 파벌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집단들 사이의 정치과잉이 다른 한

11)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9, p.59.

편으로는 정치 자체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정치협오가 공존하는 상황이 갈수록 두드러졌다. 그런 극단적 대결과 갈등의 현실 속에서 시민운동조차 시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도 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약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민운동의 핵심역할을 하던 활동가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적 네트워크,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80년대와 90년대 초 학생운동가들은 좁게는 학력과 연고, 넓게는 학생운동 전체에 기반한 사적관계를 정치인이 되는 경로로 활용한 것이다.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에게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는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정계진출을 통해 사회개혁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자의반 타의반 기존의 정치 논리에 휩쓸려 들어갔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정치논리는 1997년 이후 정권교체를 통한 형식적 정치민주화의 길은 열어 놓았지만, 실질적 정치민주화의 길에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분열과 결합을 반복하면서 형식적 정치민주화 외의 경제민주화 혹은 사회민주화로 이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한 단계 발전된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과 조율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주류로 올라선 386세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에 소속된 그들은 80년대의 기억과 논리로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선봉에 서 있었다.

386세대가 과잉정치화 될수록 전체 사회, 특히 다음 세대는 사회양극화 현상에 직면하였다. 자연스럽게 세대론과 함께 세대갈등이라는 주제가 서서히 공론장에 등장하였다. 88만원 세대에서부터 시작하여 3포 세대 혹은 N포세대를 거쳐 수저론까지 확장된 공론장에서의 세대갈등은 청년층의 절망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자포자기의 심정에 비해 해결책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그것을 위한 청년층의 집단적 실천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 특히 386세대들에 의해 장악된 정치영역이 구조화되어 바꾸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그들이 정치무관심을 넘어 정치불신이나 심지어 정치협오를 선택하면서 가져온 현상이기도 하다. 결국 소수의 386세대 정치인 그리고 그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한 정치지방생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정치적 카르텔이 형성되었고 청년층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에서 더욱 멀어졌다.¹²⁾ 그리하여 한국정치에는 극단적 현상이 지배하게 되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특정 정치인을 이상화하고

12) 콜린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서울: 미지박스, 2008과 비교.

소위 ‘팬덤’에 따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지지하는 정치인의 같은 당 상대 정치인 혹은 다른 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혐오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19대 총선과 20대 대통령 선거는 대립과 갈등 속에 한국 정치구조가 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 과정에 소위 ‘조국장관 사태’와 ‘이재명 대표의 거취문제’는 386세대의 도덕적 기반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386세대가 주도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이제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등장할 시점이 되었다. 그것은 386세대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가치관 및 세계관에 기반한 방안 모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 정신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성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2·28민주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2·28민주운동을 다루기에 앞서 한국 학생운동의 문제를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기 위하여 1960년대 유럽, 특히 독일에서 발생한 68운동의 특징과 이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독일의 68세대가 독일사회에 미친 변화과정

1. 1968년 기성세대에 대한 독일 대학생의 분노와 저항

유럽의 68운동의 기원을 1968년 5월 프랑스 낭트대학의 학생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68운동은 프랑스 전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68운동의 싹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서서히 유럽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었다.¹³⁾ 당시 유럽에는 경제적 풍요 속에 격변의 기운이 응축되기 시작하였다. 전후 폐허가 된 서독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표면적으로는 차츰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청년층의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식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68학생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후 유럽은 독일의 분단이 상징하듯이 분열상을 드러내었다. 소위 이념에 따른 분열 속에서 자본주의 세력들은 부상하는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서 체제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13) 김경집, 『진격의 10년, 1960년대: 비틀스에서 68혁명까지 김경집의 현대사 강의』, 서울: 동아아시아, 2022.

위한 협력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주도한 마셜 정책은 미국의 긴급 원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서유럽의 재건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¹⁴⁾ 경제사회의 재건은 한편으로는 유럽의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전후 기성세대들은 경제적 부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에 도취되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지와 함께 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었다. 청년들은 서서히 정치·사회·문화의 경직성에 대한 개인적·문화적 저항의식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저항정신은 단지 자본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소련 사회주의의 폭정 실상을 알게 된 청년들은 기존의 구좌파에 대해서도 등을 돌린 상태였다.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문제들, 핵폭탄이 가져올 인류의 생존 위협, 체제경쟁을 앞세워 강화되는 군산복합체, 고도의 소비사회에서의 새로운 빈곤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베트남 전쟁은 청년들로 하여금 기성세대에 맞서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다.¹⁵⁾ 좌파 대학생인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이하 SDS)은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 이후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결별한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과 갈라선 뒤 새로운 이론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었다. 고민의 출발점은 대학의 민주화와 학생자치조직의 자율적 활동이었다. 그것을 위해 SDS는 다른 이념을 가진 독일자유주의학생연맹, 독일·이스라엘학생연맹과 연합하였다.¹⁶⁾ 1968년 전까지 대학생과 정부 혹은 대학본부와의 팽팽한 긴장관계는 지속되었다. 대학생들의 언론자유 요구와 정치적 권리 주장 그리고 베트남 반전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대학생들의 저항은 1967년 여름이 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란 국왕 팔레비의 서독방문을 허용한 독일 정부의 정치적 행보가 대학생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망령이 여전히 독일사회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구사회에서도 악명높은 독재자의 서독방문은 대학생들에게 독일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베를린 자유대학 학생 베노 오네조르크가 경찰충격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⁷⁾ 베를린에서 시작된 분노한 대학생의 시위는 이후 순식간에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시위의 전략이나 방법을 둘러싼 SDS 내부의 대립 및 정부와 대학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14) 남정욱, 『미국의 마셜 계획과 유럽 통합정책』,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10.

15) 잉글리트 길허-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68운동: 독일·서유럽·미국』, 과주: 들녘, 2006.

16) 위의 책, p.36.

17) 이성재, 『68운동』, 서울: 책세상, 2009, p.51.

시위양상은 1968년에 들어서면서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지식인과 청년세대 대학생의 논쟁은 68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요구하였다. 학생운동의 핵심인물이었던 루디 뒤치케는 노동계급이 해방운동에서 특권을 가진 전위부대가 아니므로 대학 안팎의 반권위주의-진정민주주의 진영이 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치학자 볼프강 아벤트로트는 서독의 “비상권한법 저지와 민주주의 확립은 지식인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¹⁸⁾ 학생들과 지식인들 사이의 논쟁은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학생들의 독단적 행위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운동방식에 대해 논쟁하던 중 이후에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저술한 하버마스는 학생운동의 폭력성과 관념성을 비판하면서 학생운동이 ‘좌익 파시즘’의 위협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할 정도였다.¹⁹⁾ 독일의 학생운동 내부도 장기적 사회변혁을 주도할 급진 소수파의 역할을 강조하는 세력과 혁명적인 의식그룹을 중심으로 지지자의 동원과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은 반권위주의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독일의 학생운동은 전자를 대표하는 루디 뒤치케가 급진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펼치는 한편 일부 정치적 노동조합 및 자유주의 신문과의 동맹을 반대하면서 점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갔다.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학생운동의 움직임이 약했던 프랑스에서 학생운동을 재점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학내 민주화를 주장하던 낭트대학 학생들이 1968년 3월 17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지점의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베트남전 반대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가두시위와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파רי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에 걸잡을 수 없는 강도로 확산되었다. 5월 10일 파리의 라탱 지구를 점거한 대학생과 청년은 경찰과 대치하며 자신들 주장의 관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격렬한 저항을 한 프랑스의 학생운동은 다시 주변 국가들의 식어가는 저항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대학생들도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을 호소하며 동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산별 노동조합이 학생의 호소에 동조하기는 하였지만, 독일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²⁰⁾ 역사적으로 정치파업과 거리를 두는 독일 노동조합의 특징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총파업을 이끌어낸 프랑스조차 신좌파의 내부분열과 여전한 구좌파의 조직적 힘, 무엇보다 드골이 새로운 의회선거를 받아들이면서 시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듯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서독 대학생들의 저항시위는 과격한 방식으로 오히려 정부의 탄압

18) 잉글리트 길허-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68운동: 독일·서유럽·미국』, 파주: 들녘, 2006, p.106.

19) 위의 책, p.106.

20) 위의 책, p.144.

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학생운동은 분열되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게 식어갔다.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고립된 대학생들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학부를 점거하고 자신들의 급진적 주장을 다시 천명하였다. 그들 주장의 골자는 기존의 관습적인 학술활동을 중단시키고 학생이 조직한 정치적 성향의 학문에 동조하지 않는 교수를 몰아낸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의 요구를 거부한 아도르노가 경찰을 불러들이면서 학생들의 대학 점거는 막을 내렸다. 내부 동력을 상실한 SDS가 1970년 3월 21일 해산을 선언한 후 대학의 새로운 학생운동세대는 사회의 조건과 구조의 현주소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새로운 담론을 주도였고 ‘과괴·변화된 정치 사회적 조건에서 전문분야의 쟁점’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²¹⁾ 다시 말해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도부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었지만 저항과정에 대학생들을 조직의 위계질서에 종속시켜 자신들의 반권위 주의운동의 성격을 포기했던 68운동의 핵심세력을 대체하여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세력으로 분화하여 새롭게 등장하였다.²²⁾ 이른바 신사회운동의 등장이었다.

2. 68운동 이후 신사회운동과 개인화현상의 결합

독일사회에는 68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일군의 학자들에게 68운동은 1848년처럼 좌절된 혁명이다. 68운동을 기성세대에 대한 소수의 청년세대들이 보여준 반항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68운동은 실패하였지만 이후 독일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화혁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²³⁾(Rucht, 1998: 117; Dirsch, 2008). 여러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미디어를 통해 영웅시되고 신화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독일의 68운동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8운동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 외에 이후에도 다양한 갈래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²⁴⁾ 다시 말해 SPD(사회민주당)와 FDP(자유민주당) 내 정당개혁

21) 위의 책, p.175.

22) 김누리,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가 없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사회 탐험기』, 서울: 해냄출판사, 2021, p.92와 비교.

23) Rucht, Dieter, "Ereignisse von 1968 als soziale Bewegung: Methodologische Überlegungen und einige empirische Befunde", Gilcher-Holtey, Ingrid, eds., 1968, *vom Ereignis zum Gegenstand der Geschichtswissenschaf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p.117; Dirsch, Felix, "Kulturrevolution oder Studentenbewegung: Ansätze zur Historisierung der Ereignisse von 1968", *Zeitschrift für Politik*, Vol 55, no 1, 2008, pp.5-32.

24) Dirsch, Felix, "Kulturrevolution oder Studentenbewegung: Ansätze zur Historisierung der Ereignisse

을 주도한 온건한 세력에서부터 신사회운동이나 신좌파 세력을 거쳐 RAF(Red Army Faction, 적군파)로 불린 좌파테러리스트까지 독일사회에 새로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였다.²⁵⁾ 68운동 이후 초기의 평가가 전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68운동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분명하다. 무엇보다 젊은 청년층의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정신은 70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극장에서의 심미적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비속한 일상생활적 공연문화의 등장, 공공장소에서의 남녀간의 애정표현, 대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교육적인 영향력, 가족생활의 정치화는 68운동 이후 기존 질서에 대한 청년들의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었다.²⁶⁾

문화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68운동은 이후 과거의 관례, 즉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68운동까지는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산업사회에서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을 통해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대세였다. 그러나 68운동 이후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상실하면서 폭넓게 분화된 현실을 반영한 사회운동의 다원화현상이 나타났다. 소위 신사회운동의 등장이었다. 이전의 독점적 혁명주체로서 경직되고 위계적인 조직에 기반한 노동운동과 거리를 둔 신사회운동은 교양있는 중산층이 주도하는 급진적 개혁운동으로서 느슨하고 탈중심적인 조직유형에 기초하여 노동운동 외에 평화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등으로 분화되었다.²⁷⁾ 유연한 사고에 기초한 신좌파가 주도하였던 신사회운동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현상인 개인화와 마주하였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사회경제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위협하기 전까지 서구사회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경험하였다. 경제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과정에 복지국가를 구축한 서구사회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50년대와 60년대의 경제발전은 사람들의 교육열로 이어졌고 60년대와 70년대에 교육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가져왔다. 소득 및 교육과 관련된 생활수준의 상향이동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였다.²⁸⁾ 한편으로는 그동안 노동조

von 1968”, *Zeitschrift für Politik*, Vol 55, no 1, 2008, p.30.

25) Rucht, Dieter, “Ereignisse von 1968 als soziale Bewegung: Methodologische Überlegungen und einige empirische Befunde”, Gilcher-Holtey, Ingrid, eds., 1968, *vom Ereignis zum Gegenstand der Geschichtswissenschaf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p.123.

26) Offe, Claus, “Vier Hypothesen über historische Folgen der Studentenbewegung”, *Leviathan*, Vol 24, no 4, 1998, p.551.

27) Rucht, Dieter, “Neue Konflikte und neue soziale Bewegungen in Deutschland”, Brigitte Grande, Edgar Grande, and Udo Hahn eds., *Zivil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brüche, Umbrüche, Ausblicke*,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21, p.65.

28) Beck, Ulrich, “Jenseits von Stand und Klasse?”, Kreckel, Richard, eds., *Soziale Ungleichheiten*,

함을 통해 생활의 안정감을 누렸던 노동계급 내부에 불어닥친 변화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경쟁력을 가진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원하였다.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기 시작하였고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은 점차 약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였다. 무엇보다 가족, 특히 남편에 구속되어 있었던 기혼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면서 과거의 안정된 모델인 부부와 자녀의 가족관계는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가족해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전통적 가족에서 별거, 동거 혹은 이혼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났다.²⁹⁾ 노동조직의 내부분화를 통한 계급의식의 약화 그리고 여성들의 자립적 경제활동과 자녀들의 독립적 생활의지에서 비롯된 전통가족의 해체는 1980년대 개인화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이제 개인은 각자 개별행위의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들은 과거의 관례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집단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특별한 상황이 해소되면 다시 해체되는 과정에 익숙해지게 되었다.³⁰⁾ 이런 점에서 개인화현상이 신사회운동과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적 욕망에 거리를 두는 탈물질적 가치지향 그리고 경제 성장에 의존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졌던 개인은 1980년대부터 신사회운동의 형태로 사회변화를 위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신사회운동을 통해 개인은 사회발전의 변화된 문화 모델의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역동성을 새로운 역사적 행위 연관에서 발견하였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의 목표설정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행위변화를 포괄하는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위한 척도로 이해되었다.³¹⁾ 그러나 신사회운동은 철저히 양면적인 모습을 띠었다. 한편으로 근대 초기 시민의 해방운동과 노동운동에 의해 대표되는 저항적 근대이념의 담지자인 동시에 그때까지 인정되었던 근대의 길을 철저히 의심하면서 근대의 획일적 프로젝트로부터 벗어나려는 반계몽주의적 경향을 보여주었다.³²⁾ 그리하여 다양한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의 의

Soziale Welt, Sonderband 2. Gottingen. 1983, pp.35-74.

29) Beck, Ulrich, "Jenseits von Klasse und Nation: Individualisierung und Transnationalisierung sozialer Ungleichheiten", *Soziale Welt* Vol 59, no 4, 2008, p.305.

30) op. cit. p.56.

31) Meyer, Thomas and Michael Müller, "Individualismus und neue soziale Bewegungen", *Leviathan*, Vol 17, no 3, 1989, p.360.

도를 가진 행위자, 따라서 68세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세대들의 참여에 기초하는 신사회운동은 전통적 사회운동처럼 동질적일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역의 개별운동 내부적으로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사회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내부경쟁 혹은 내부갈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정치는 더 이상 사회통합과 결속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새로운 해결책은 개인화된 행위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적 중재와 평등한-담론적 상호이해의 형식들을 통해 가능하였다.³³⁾

3. 문화변화에 따른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구성

신사회운동과 개인화가 강조되면서 독일사회의 기본 경제정책이자 사회정책이었던 사회적 시장경제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전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공동체의 자율성을 전제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의 통제와 개입을 우선하였다. 규범을 강조하고 사회제도를 강조하는 독일의 전통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수동적 존재로서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었다.³⁴⁾ 그러나 68학생운동 이후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가 노동운동을 통해 해소되면 여성문제, 평화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다른 사회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등장하였고 개인화된 행위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생활정치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이후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면서 신사회운동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회적 시장경제에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공동체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방식이 요구되었다.³⁵⁾ 그것은 또한 199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흐름에 적응 혹은 대응할 수 있는 독일의 방식이어야 했다.

1990년 통일된 독일사회는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 외에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독일정부가 감세 등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결과였다. 게다가 통일을 성취한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32) Ibid. p.361.

33) Eder, Klaus, "Soziale Bewegung und kulturelle Evolution: Überlegungen zur Rolle der neuen sozialen Bewegungen in der kulturellen Evolution der Moderne", Johannes Berger eds., *Die Moderne - Kontinuitäten und Zäsuren*, Göttingen: Schwartz, 1986, pp.335-357.

34) 랄프 다렌도르프, 이종수 옮김, 『분단독일의 정치사회학』, 서울: 한길사.

35) Mayntz, Renate and Fritz W. Scharpf, "Der Ansatz des akteurzentrierten Institutionalismus", Renate Mayntz and F. W. Scharpf, eds., *Gesellschaftliche Selbstregulierung und politische Steuerung*.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95, pp.39-72.

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독일사회가 찾은 타개책은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기여였다. 그것은 중도 우파 정부인 헬무트 콜 총리뿐만 아니라 후임인 중도 좌파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정책기조였다. 먼저 콜 정부는 사회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실업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맞물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인들과 특히 시장에 이전의 국가가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책적 변화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역할이 새롭게 규정되고, 공동체가 새롭게 정의되며, 연대정신이 새롭게 형성되고, 연대의 역동성이 새롭게 근거”지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³⁶⁾

사회적 시장경제의 변화는 콜 정부에 이어 등장한 슈뢰더 정부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콜 정부에서 슈뢰더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정권교체는 세대교체를 의미하였다. 콜 내각이 전후세대를 상징하였다면 슈뢰더 정부의 주요 내각 요직은 68운동을 통해 정치적 사회화를 경험한 인물들이 차지하였다. 게다가 연정의 파트너 정당인 녹색당도 68운동 이후 신사회운동과 함께 정치에 뛰어들어 활동가들이 결성한 정당이었다. 그리하여 적녹연정의 등장은 68운동의 학생지도자였던 두취케가 주장한 제도를 통한 행진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었다.³⁷⁾ 1998년 총선을 앞두고 SPD는 상반된 노선, 즉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론과 복지국가, 연대 그리고 안전보장을 우위에 두는 전통적 공감 사이에서 심하게 동요하였다.³⁸⁾ 최종적으로 전 SPD 대표이자 재무장관이었던 오스카 라퐁텐이 당의 우경화에 반발하여 탈당한 후 68운동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세대들이 주도한 슈뢰더 정부는 전통적 좌파의 정치노선과 결별하고 콜 정부가 시행했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이어받아 ‘신중도 (Neue Mitte)’의 이름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했던 ‘제3의 길’을 반영한 정책적 방향이기도 하였다.

슈뢰더 정부는 취임 초 노조에게 좀 더 유연한 조직을 허용할 것을, 그리고 경영인에

36) Lessenich, Stefan, “Umbau, Abbau, Neubau? Der deutsche Sozialstaat im Wandel”, *Leviathan*, Vol 24, no 2, 1996, p.219.

37) Egle, Christoph, Tobias Ostheim and Reimut Zohlnhöfer, “Einführung: Eine Topographie des rot-grünen Projekts”, Christoph Egle, Tobias Ostheim and Reimut Zohlnhöfer, eds., *Das rot-grüne Projekt*,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2003, pp.9-25.

38) Butterwege, Christoph, *Krise und Zukunft des Sozialstaates*,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2, p.332.

게 더 많이 투자하고 혁신할 것을 요구하면서 SPD 내부의 반발을 또다시 불러일으켰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³⁹⁾ 게다가 슈뢰더 정부가 SPD 내부와 노조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젠다 2010을 추진하면서 그런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경제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국가역할을 여전히 강조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⁴⁰⁾

여당내부의 논란 속에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포괄적으로 진행한 어젠다 2010을 슈뢰더 정부는 야당인 CDU/CSU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였다. 과거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진할 당시 여당이었던 CDU/CSU가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SPD와 협력관계 속에 추진하였던 방식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은 합의제 코포라티즘을 복원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새롭게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⁴¹⁾ 그것은 슈뢰더 총리에게 경제자문을 하였던 훔바흐(Hambach)의 제안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부흥의 길’이기도 하였다.⁴²⁾ ‘활성화하는 사회국가(aktivierender Sozialstaat)’로 명명된 슈뢰더 정부의 정책기조는 1차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의 목표를 ‘요구하고 지원하는(fordernden und fördernden)’ 수단과 결합하는 것이었다.⁴³⁾ 정부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일정한 의무나 요구사항을 부여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활성화하는 사회국가는 행위자와 그들로 구성된 기존의 비영리단체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끌었다. 사회공동체 행위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욱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변화를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39) Braunthal, Gerard, “The 1998 German Election: Gerhard Schröder and the Politics of the New Middle”, *German Politics & Society* Vol 17, no 1, 1999, p.37.

40) Trube, Achim and Norbert Wohlfahrt, “Der aktivierende Sozialstaat’: Sozialpolitik zwischen Individualisierung und einer neuen politischen Ökonomie der inneren Sicherheit”, *WSI-Mitteilungen* Vol 54, no 1, 2001, p.29.

41) 김상철, “독일 어젠다 2010 평가와 전망”, 『질서경제저널』, 제17권 제2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pp. 1-26.

42) Braunthal, Gerard, “The 1998 German Election: Gerhard Schröder and the Politics of the New Middle”, *German Politics & Society* Vol 17, no 1, 1999, p.39.

43) Trube, Achim and Norbert Wohlfahrt, “Der aktivierende Sozialstaat’: Sozialpolitik zwischen Individualisierung und einer neuen politischen Ökonomie der inneren Sicherheit”, *WSI-Mitteilungen* Vol 54, no 1, 2001, pp.27-36.

공동체사회에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런 흐름은 노동 4.0에 기초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산업의 구조변동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IV. 한국 386세대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변혁의 토대로서 2·28 민주운동의 의미

위에서 살펴본 독일의 68운동과 한국의 1987년 민주화운동은 발생배경과 그 이후 30여년 동안 각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유사점으로서 먼저 두 운동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다. 독일의 68운동은 전후 사회경제재건정책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던 시점에 등장했던 것처럼 한국의 1987년 민주화운동도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누리던 시점에서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는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저항운동이 정부의 물리적 진압과 충돌하면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회변혁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68운동과 한국의 1987년 민주화운동은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공고화와 다양한 사회운동의 등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⁴⁴⁾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두 운동은 명백한 차이점을 가진다. 두 운동 모두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경직된 폐쇄성과 독단에 빠지게 되지만 독일의 68운동의 핵심세력이었던 SDS는 신좌파의 이념에서 출발하였다. 호르크하이머, 마르쿠제 그리고 하버마스와 같은 비판이론가이자 네오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그들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와 물질주의적 경도에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서독 노동자들의 계급성 상실과 동독 노동자의 이념적 경직성을 동시에 비판하였다. 68운동의 시대정신은 정치변혁과 함께 문화혁명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68운동은 이후 문화변혁으로 전환되면서 탈물질주의와 해방주의적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68운동 이후 30년, 40년을 보낸 독일사회는 68운동 세대처럼 어느 특정세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경쟁하고 대립하지만, 타협과 협력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44) 김종범, “68운동과 87년 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변혁 주체로서 학생 및 학생조직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통권 16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p.252-285; 정태석,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경제와사회』, 통권 72집,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pp.125-147.

한국의 1987년 민주화운동이 가지는 한계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신좌파에 기반한 독일의 68운동과는 달리 1980년대 한국의 대학생들은 구좌파,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상태였다. 독일의 68운동세대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 관료주의적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정치투쟁에서 시작하였지만 이후 문화변혁으로 전환하였던 반면,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그리고 반쪽이기는 하지만 승리를 쟁취했던 386세대는 이후 줄곧 정치투쟁의 중심에 있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신을 내세우며 졸업 후 그것을 하나의 훈장처럼 활용한 그들은 과거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부와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 현상은 단지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에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민단체도 ‘우리끼리문화’가 작동하면서 소수의 명망가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들만의 집단이 되었다. 시민활동을 발판삼은 386출신 시민운동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정치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들만의 친밀한 인맥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68운동처럼 탈물질주의적, 해방주의적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닌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질서로의 합류였고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의 추종이었다. 간혹 불평등문제를 정치적 대결과 갈등의 소재로 삼았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유효리로 활용하면서 386세대는 세습자본주의의 구조를 오히려 방관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30년 여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다음 세대는 그런 현실을 헬조선이라 명명하고 386세대에게 ‘미필적고의’에 대한 혐의를 묻고 있다.⁴⁵⁾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이후에 정치권에 뛰어들어 일군의 학생운동가를 지칭하던 386세대는 점차 부채의식을 토로하는 당시 현실적이지만 세속적 성공을 이룬 인물들을 포함하다가 이제 당시를 공통으로 회상하는 세대공동체로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 되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만의 견고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성세대의 상징이 되었고 결국 사회변화의 장애물로 전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과거에서 벗어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변혁이 아니라 문화변혁이 필요하고 그것을 밀고 나갈 중심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운동의 주축이었던 386세대 이후 등장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후 가족주의가 중심이 된 각자도생의 삶이 공고해지면서 학생운동의 전통은 단절되었고 일부 대학생들은 정치적 사건에 자의반 타의반 동원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사이 한국사회에 유럽의 68운동 정신의 제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68운동처럼 ‘소비자본주의

45) 김정훈 외, 『386 세대 유감: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고의를 묻다』,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19.

하에서 의식구조와 욕구구조를 비판하고, 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를 바꾸어내고, 일상의 생활양식을 개혁'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⁴⁶⁾ 그러나 독일사회가 한국사회와 다른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68운동의 정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가 1960년 2·28민주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독일의 68운동 정신의 수용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외에 한국사회에서도 유럽의 68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학생운동의 기원과 역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짧은 기간에 발생하였지만 이후 4·19학생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적 문화변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2·28민주운동의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발생한 대구지역의 학생운동은 68운동의 정신이었던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에 대한 당시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⁴⁷⁾ 무엇보다 1960년대 초 서구의 청년층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더군다나 고등학생이 봉기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다.⁴⁸⁾ 8·15해방 이후 한국 최초의 학생운동이었던 2·28민주운동은 무능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대구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에서 시작되었다.⁴⁹⁾ 백색테러가 자행되던 엄혹한 권위주의 시대에 학도호국단이 존재했던 고등학교의 유교적 위계질서 속에서도 그들은 다양한 기본원칙을 천명하면서 불의에 대한 항거를 실천하였다.⁵⁰⁾ 1960년 2월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그들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추모열기와 선거의 선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당이던 자유당은 긴급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고등학생들을 일요등교를 지시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섧 권리'와 '학원의 자유'와 '정치와 교육의 분리'라는 인간 및 학생기본권의 인식 위에서 시위를 결의하고 거리를 행진하였다,⁵¹⁾ 경찰에 의해 200여 명의 학생

46) 정현백, "68학생운동의 한국적 수용", 『독일연구』, 통권 16집, 한국독일사학회, 2008, pp.111-135.

47) 이희영, "독일 '68세대'와 과거극복: 나치과거에 대한 세대 경험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 40권, 제 3호, 한국사회학회, 2006, pp.32-61과 비교.

48) 이완범, "4·19전조로서의 1960년 초봄 지역시민 운동 '4·19'의 '대학생-서울' 중심사관을 넘어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4권 제 20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3, pp.37-71.

49) 배규성, "대구 2·28민주운동: 지역적 의미와 계승", 『국제정치연구』, 제 14권 제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pp.101-124.

50) 김일수,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지향", 『대구경북연구』, 제 20권 제 2호,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21a, pp.111-131.

들이 연행되면서 시위가 진압된 후 정부와 자유당 정권은 빨갱이 사주론과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격하시켰다.⁵¹⁾ 그러나 2·28민주운동은 점차 전국적 학생운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여 3월 15일 마산의거로 이어졌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계승되었다. 2·28민주운동에서부터 4·19혁명에 이르기까지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운동은 ‘자치학생회의 건립’, 어용교사 배척 및 부패재단 정화, 교원노동조합지회 활동 등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4·19혁명 이후에도 대구지역고등학생들은 미군시설로 사용되던 학교건물의 반환운동과 한미경협반대를 통해 자주화 운동을 펼쳤다. 그들은 또한 장면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모규제법과 반공법 제정에 대한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한 결과 5·16 군사정부의 비상계엄령 아래 최고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두 법의 제정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2·28민주운동은 1968년 독일의 학생운동보다 앞선 시기에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독일보다 더욱 엄혹했던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기성세대에 저항하며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V. 나오며

1987년 민주화운동은 대학생들이 주도하면서 이후 한국사회에 정치적 민주주의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불살라 민주화에 헌신했던 대학생들은 서서히 386세대라는 이름으로 민주화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한 세대공동체의 결집력을 보여주면서 30대부터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언론, 학계에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386세대는 그들이 비판하고 저항했던 기성세대의 폐습을 답습하면서 민주화 이후 또 다른 기득권세력이 되었다. 정치논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들에 의해 한국사회는 정치과잉의 상태에 빠졌다. 기존의 흑백논리는 더욱 강화되어 우리와 그들의 구분은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청년세대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68운동에 주목하는 특별한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가 다른 유럽 특히 독일의 역사적 사건과 과정을 수용하기엔

51) 위의 논문; 서보건, “인간의 권리로서 쉼 권리(휴식권)와 2·28 민주운동 결의문”, 『민족문화논총』, 통권 80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pp.181-215.

52) 김일수,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민족문화논총』, 통권 79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b, pp.951-990.

너무나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는 독일의 68운동을 참고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학생운동과 이념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87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급진적 학생운동의 문제를 극복하고 386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보여준 권위주의의 답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치변화가 아닌 문화변혁이 필요하고 그것은 모든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념과 가치의 재정립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해방 이후 학생운동의 원형으로서 2·28민주운동이다. 학원자주화의 탈권위주의에 기반한 2·28민주운동은 대구지역의 고등학생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탈중앙집중화의 시대적 요구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근대사회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보여준다. 갈수록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는 현실에서 개개인은 무엇보다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개인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스스로 비판능력 혹은 자율적 판단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2·28민주운동의 정신은 어느 특정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유하면서 이분법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변혁을 위한 모범이자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민주화운동과 연결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찾아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서울: 형성사, 1988.
- 강준만, 『강남 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1.
- 강준만, 『강남 좌파. 2,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9.
- 고원, “민중민주(PD)과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과 메커니즘”, 이호룡·정근식(편), 『학생운동의 시대』, 서울: 선인, 2013.
- 잉그리트 길허-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68운동. 독일·서유럽·미국』, 파주: 들녘, 2006.
- 김경집, 『진격의 10년, 1960년대: 비틀스에서 68혁명까지 김경집의 현대사 강의』, 서울: 동아시아, 2022.
- 김누리, 『우리엔 절망할 권리가 없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사회 탐험기』, 서울: 해냄출판사, 2021.
- 김상철, “독일 아젠다 2010 평가와 전망”, 『질서경제저널』, 제17권 제2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 김옥동·심광현·양운덕·이정우·이진경, “현대 프랑스 사상의 한국적 이해와 수용”, 이정우·김성기 외(편), 『프랑스 철학과 우리』, 서울: 당대, 1997.
- 김일수,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지향”, 『대구경북연구』, 제 20

- 권 제 2호,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21a.
- 김일수,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민족문화논총』, 통권 79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b.
- 김정훈·심나리·김항기, 『386 세대 유감 :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고의를 묻다』,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19.
- 김종범, “68운동과 87년 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변혁 주체로서 학생 및 학생조직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통권 16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남정옥, 『미국의 마셜 계획과 유럽 통합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0.
- 랄프 다렌도르프, 이종수 옮김, 『분단독일의 정치사회학』, 서울: 한길사.
- 배규성, “대구 2·28민주운동: 지역적 의미와 계승”, 『국제정치연구』, 제 14권 제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 서보건, “인간의 권리로서 쉼 권리(휴식권)와 2·28 민주운동 결의문”, 『민족문화논총』, 통권 80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유형근, “쟁점과 대안 :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은 어떻게 해체돼 갔는가”, 『노동사회』, 통권 164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 이성재, 『68운동』, 서울: 책세상, 2009.
- 이완범, “4·19전조로서의 1960년 초봄 지역시민 운동 ‘4·19’의 ‘대학생-서울’ 중심사관을 넘어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4권 제 20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3.
- 이은영, 『관습의 정치 : 한국 정치의 해부와 대안』, 서울: 박영사, 2007.
- 이창언, “NL(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의 주류화와 한계”, 이호룡·정근식(편), 『학생운동의 시대』, 서울: 선인, 2013.
-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9.
- 이희영, “독일 ‘68세대’와 과거극복 : 나치과거에 대한 세대 경험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 40권, 제 3호, 한국사회학회, 2006.
- 정태석,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경제와사회』, 통권 72집,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 정현백, “68학생운동의 한국적 수용”, 『독일연구』, 통권 16집, 한국독일사학회, 2008.
- 폴린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서울: 미지북스, 2008.
-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유엔제이 옮김, 『21세기 자본』, 파주: 글항아리, 2014.
- Beck, Ulrich, “Jenseits von Stand und Klasse?”, Kreckel, Richard, eds., *Soziale Ungleichheiten*, Soziale Welt, Sonderband 2. Gottingen. 1983, pp.35-74.
- Beck, Ulrich, “Jenseits von Klasse und Nation: Individualisierung und Transnationalisierung sozialer Ungleichheiten”, *Soziale Welt* Vol 59, no 4, 2008.
- Braunthal, Gerard, “The 1998 German Election: Gerhard Schröder and the Politics of the New Middle”, *German Politics & Society* Vol 17, no 1, 1999.
- Butterwege, Christoph, *Krise und Zukunft des Sozialstaates*,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2.
- Dirsch, Felix, “Kulturrevolution oder Studentenbewegung: Ansätze zur Historisierung der Ereignisse

- von 1968”, *Zeitschrift für Politik*, Vol 55, no 1, 2008.
- Eder, Klaus, “Soziale Bewegung und kulturelle Evolution: Überlegungen zur Rolle der neuen sozialen Bewegungen in der kulturellen Evolution der Moderne”, Johannes Berger eds., *Die Moderne – Kontinuitäten und Zäsuren*, Göttingen: Schwartz, 1986.
- Egle, Christoph, Tobias Ostheim and Reimut Zohlnhöfer, “Einführung: Eine Topographie des rot-grünen Projekts”, Christoph Egle, Tobias Ostheim and Reimut Zohlnhöfer, eds., *Das rot-grüne Projekt*,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2003.
- Lessenich, Stefan, “Umbau, Abbau, Neubau? Der deutsche Sozialstaat im Wandel”, *Leviathan*, Vol 24, no 2, 1996.
- Mayntz, Renate and Fritz W. Scharpf, “Der Ansatz des akteurzentrierten Institutionalismus”, Renate Mayntz and F. W. Scharpf, eds., *Gesellschaftliche Selbstregulierung und politische Steuerung*,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95.
- Meyer, Thomas and Michael Müller, “Individualismus und neue soziale Bewegungen”, *Leviathan*, Vol 17, no 3, 1989.
- Offe, Claus, “Vier Hypothesen über historische Folgen der Studentenbewegung”, *Leviathan*, vol 26, no 4, 1998.
- Rucht, Dieter, “Ereignisse von 1968 als soziale Bewegung: Methodologische Überlegungen und einige empirische Befunde”, Gilcher-Holtey, Ingrid, eds., *1968, vom Ereignis zum Gegenstand der Geschichtswissenschaf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 Rucht, Dieter, “Neue Konflikte und neue soziale Bewegungen in Deutschland”, Brigitte Grande, Edgar Grande, and Udo Hahn eds., *Zivil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brüche, Umbrüche, Ausblicke*,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21.
- Trube, Achim and Norbert Wohlfahrt, “Der aktivierende Sozialstaat’: Sozialpolitik zwischen Individualisierung und einer neuen politischen Ökonomie der inneren Sicherheit”, *WSI-Mitteilungen* Vol 54, no 1, 2001.

【 Abstract 】

**The Limitations Left by the 1980s Student Movement
and the Restoration of the Spirit of Student Movement
through the 2·28 Democracy Movement :
Comparing the 1968 Student Movement in Germany
with the 1987 Student Movement in South Korea**

Kim, Tae Keon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serious social conflict caused by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confrontation. However, the condition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are currently difficult. While the 386 generation, which has long been the main force in society, shows a tendency to protect its privileges, the potential for social change ha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younger generation has lost its power of resistance and criticism amidst the endless competition for survival. This is why the younger generation expresses resentment and hatred towards the 386 generation. This study traces the historical process of how the current state of the 386 generation, which is evaluated as having dedicated itself to past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contributed to political democratization, is a result that was already anticipated in the 1980 student movement. Subsequently, in order to clarify this point, we will compar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subsequent path of Germany's 68 generation student movement. Finally,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2·28 Democracy Movement in the Daegu region, especially the student movement of the 60s, in order to revisit the aspirations for social change among local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not sunk into ideology, political power, and material logic, a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mind contemporary people of the ideals and values they should pursue.

Key Words : 68er Movement in Germany, 1987 Democracy Movement in Korea, New Social Movements, 386 Generation, Cultural Transformation, 2·28 Democracy Movement.